

“사병 계급체계 개정, 처우개선·전투력 등 고려 신중해야”

민관군 합동위원회

국방부에 4→3단계 개정 권고에 전문가 “성과내기식 단계추진 안돼” 일자형 계급장 개선에 우려 목소리



대위계급장

/유투이미지

장병의 권익강화와 병영문화혁신 등 군개혁을 위해 만들어진 ‘민관군 합동위원회(이하 합동위)’가 29일 병 계급체계를 4단계에서 3단계로 줄이는 방안을 국방부에 권고하자, 군 내부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복수의 간부들은 30일 본지에 “메뉴는 안 바꾸고 간판만 바꾸는 격”, ‘백종원의 코칭이 아니라 맥방유튜버 코칭’ 등의 반응을 보내왔다. 이들의 반응을 정리하면 장병 권익보호와 처우개선, 강병육성의 목표보다 보여주는 허례허식에 빠진 조치라는 것이다.

◆보여주기식이 아닌 강군육성을 위한 개정돼야

익명의 부사관은 “군복무 기간이 육군 기준으로 18개월로 줄어들어 4계급체계를 3계급체계로 줄여한다는 목소리는 군 내부에도 있었다”면서도 “합동위가 생각한 보여주기식 목소리는 아니었다”고 귀띔했다.

이 부사관은 “미국·유럽, 일본처럼 강한 부사관 체계를 만들 수 있는 연

된 개선을 부사관단에서 원해왔다”면서 “분대장 직위를 수행하기 위해 분대장 교육을 받은 자에 한해 병장으로 전역시키는 방안 등이 한 예”라고 덧붙였다.

미국은 병과 부사관을 합쳐 사병(士兵)이란 의미의 ‘인리스티드(Enlisted)’로 분류한다. 이 분류에는 훈련병(E1)~원사(E9)가 포함된다. 일부 계급은 직무에 따라 명칭과 계급장을 다르게 정하고 있다. 이는 사병 신분이라도 능력에 따른 보상이 달라지고, 병사 신분에서 수평적 조직문화가 자리잡았다는 의미다.

미육군의 경우 병 복무과정에서 우수한 인원은 NCO스쿨(부사관 학교-한국군 분대장교육대)로 보내져 엄정한 교육

을 받은 후 부사관급인 상병(Corporal·E4)이 되지만, NCO 과정을 수료하지 못하면 스페셜리스트(E4)로 통상 전역하게 된다. 한국전쟁 무렵의 한국 육군과 공군도 미군의 계급체계를 본떠 현재 상병에 해당하는 하사부터 부사관으로써의 임무를 수행했다. 당시 병사 계급체계는 이등병-일등병-하사-이등중사-일등중사-이등상사-일등상사-특무상사(8계급은 현재와 동일)였다.

유럽의 상당수 국가와 일본 자위대는 미군보다 간략화된 병 계급체계를 가지고 있다. 일본 육상자위대의 경우 2010년 한국군의 이등병에 해당하는 3등육사 계급을 폐지했다.훈련에 해당되는 자위관후보생 계급을 제외하면 병 신분

은 3계급 체계다. 이는 병 신분에서 직업적 안정성이 보장되는 부사관 신분으로 전환을 늘리기 위해, 신입자위대원을 적게 선발하는 방향으로 병력확보 계획을 변경했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모병제 국가처럼 능력주의 차등진급은 가혹하다는 반론도 제기된다. 치열한 취업경쟁 속에서 ‘경력’에 목을 매는 청년들을 ‘애국페이’로 몰아 넣을 수 있는 위험성도 있기 때문이다.

◆품나게 만들기는 쉬워도 근본 바꾸기는 어려워

복수의 전문가들은 “병의 계급체계 변경은 병의 권익보호 및 처우개선, 군의 전투력 강화를 모두 따져가며 장기간의 연구와 고민이 필요하다”면서 “전문성이 약한 계층이 많이 포함된 합동위가 단시간에 성과내기식을 추진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합동위가 병 계급체계 변경과 함께 권고한 ‘일(-)자’형 계급장의 개선도 군 안팎에서는 좋지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 1996년과 2017년 군인복제령 개정을 통해 부사관의 계급장은 장교와 유사하게 변경됐지만, 부사관의 처우개선은 크게 진척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퇴역 부사관은 “하사관이 부사관으

로 바뀌고 계급장의 모양도 변했지만, 수십 년간 문제의 본질은 바꾸지 못했다”면서 “1996년 이전의 계급장은 4줄의 병계급장 위에 한국전쟁 때부터 전통으로 내려온 슈브론(V자 또는 역V자)이 올라갔다. 전통과 원숙미마저도 사라진 셈”이라고 말했다.

예비군 업무를 담당하는 익명의 군무원은 “제복에 대한 원칙과 가치를 지키지 못하는데 계급장만 바뀐다고 예우와 존경이 생기지는 않을 것”이라며 “병으로 전역한 예비군들이 무자격표지장과 기장, 또는 총천역색군복을 착용하는 군복에 대한 가치편향을 해결하는 것이 우선일 것”이라고 말했다.

합동위 측은 하사 이상 군 간부의 계급에 포함된 무궁화 문양(꽃받침)이 병 계급에 없는 것은 병을 충분히 예우하지 못한다는 인식이 있다며 무궁화 문양을 추가하거나 새로운 계급을 만들라고 권고했다.

한국군 계급장에 무궁화 문양이 추가된 배경은 1954년 5월에 제정된 위관장교의 계급이 순경과 비슷해 보인다는 군안팎의 의견이 나오면서부터다. 1975년 9월 장군계급을 시작으로 1980년 7월에는 위관 이상 장교계급으로 무궁화 문양의 계급장은 확대됐다.

/문형철 기자 captinn@metroseoul.co.kr

산업부, ‘디지털 신분증’ 표준화 개발 속도

‘디지털 ID 표준 기술 세미나’ 개최 모바일 운전면허증부터 도입될 듯

디지털 신분증이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시작으로 국가유공자증, 장애인증, 외국인등록증 등으로 확대되며 도입된다. 정부는 이를 위한 신분정보 교환방식, 식별장치, 보안체계의 표준화 개발에도 속도를 낸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30일 생활 속 디지털 전환을 이끌어 갈 디지털 신분증(ID)의 표준화방안 논의 위한 ‘디지털 신분증(ID) 표준 기술 세미나’를 개최했다.

디지털 신분증은 모바일운전면허증, 모바일여권 등 디지털화된 데이터를 IC카드 칩, 스마트 디바이스 등에 저장

해 개인의 신원과 자격을 증명하는 전자신분증이다. 세미나에는 행안부, 국토부, 외교부, 경찰청 등 관계부처와 삼성전자, KT 등 관련 산업계, 인터넷진흥원, 전자통신연구원, 한국조폐공사 등 공공·연구기관 및 학계 전문가가 참여했다.

행사에선 분야별 전문가 발표와 패널 토의가 이어졌다. 디지털 신분증 기술과 산업 동향, 표준화 사례가 공유됐고, 참석자들은 국가표준 개발과 국제표준화 전략을 모색했다.

행안부가 이날 발표한 디지털 정부혁신을 위한 국가 모바일 신분증의 도입 계획에 따르면, 국내 디지털 신분증은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시작으로 도입된다. 이후 국가유공자증, 장애인증, 외국

인등록증 등으로 확대된다.

삼성전자는 각종 디지털기기가 스마트폰 하나로 대체돼 온 현재까지의 기술 변화와 디지털 신분이 가지고 올 일상생활의 변화양상을 소개했다. 또 개인정보 보호 등 보안성이 강화된 스마트폰 개발 현황, 이에 활용된 표준을 설명하고, 국제호환성 확보를 위한 표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국제표준화 작업반 의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아이버디탁승호 대표는 우리나라 주도로 진행되는 드론 시벌 기술의 국제표준화 현황을 소개했고, 한양대 최명렬 교수, 한국조폐공사는 디지털 신분증 국제표준화 현황과 분야별 디지털 신분증의 기술동향을 발표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

“中·英 에너지수급불안, 국내영향 제한적”

산업부 “사태 장기화 대비해야”

최근 중국과 영국 등에서의 석유 품질 등 에너지 수급불안과 관련해 우리 정부는 국내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밝혔다.

박기영 산업부 제2차관은 30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에너지 수급동향 긴급 점검회의’를 개최한 자리에서 “중국·영국에서의 수급 불안이 당장 우리나라의 에너지 수급 상황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태 장기화 등 현지에서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는 만큼 철저히 관리해 줄 것”을 강조했다.

이날 회의는 최근 국제유가와 천연가스 가격 상승 및 중국·영국의 수급불안에 따른 국내 에너지 수급동향을 점검



박기영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이 지난 29일 ‘탄소중립 관련 에너지 업계와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열린 ‘에너지 얼라이언스 CEO 간담회’를 주재했다. /산업부

하기 위한 것이다. 이달 중국 산둥·강소·장쑤성 등의 전력소비 제한조치가 내려졌고, 영국에선 석유부족 사태가 벌어졌다.

/세종=한용수 기자

보건복지부 제2차관에 류근혁 내정

靑, 사회정책비서관엔 여준성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류근혁 대통령비서실 사회정책비서관을 보건복지부 제2차관으로 내정했다. 공석이 된 사회정책비서관에는 여준성 복지부 장관정책보좌관을 내정했다. 박경미 청와대대변인은 이날 오후 문 대통령의 복지부 제2차관 및 대통령비서실 사회정책비서관 인사 단행 사실을 전했다.

류근혁 차관 내정자는 서울 중동고와 인하대 행정학과 졸업 후 영국 스완지대 석사, 인제대 보건학 박사 과정을 마

쳤다. 행정고시 36회로 공직사회에 입문한 류 내정자는 복지부 건강정책국장, 대통령비서실 사회정책비서관실 선임행정관, 복지부 인구정책실장을 거쳐 사회정책비서관으로 일하고 있다.

박 대변인은 류 내정자에 대해 “건강·보건 분야 핵심 보직을 거쳐 사회정책비서관으로 재직 중인 보건 의료 전문가”라며 “세계보건기구(WHO) 근무 등을 통해 폭넓은 국내외 네트워크와 탁월한 소통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소개했다.

류 내정자 인사에 따라 공석이 된 사



류근혁 보건복지부 제2차관, 여준성 대통령비서실 사회정책비서관

회정책비서관에 내정된 여준성 내정자는 원주고, 상지대 전산학과를 졸업한 뒤 국회의원 보좌진으로 활동하다 대통령비서실 사회정책비서관실 행정관 등을 지낸 뒤 현재 복지부 장관정책보좌관으로 일하고 있다.

/최영훈 기자 choiyoungkr@

쌀 발효 전통 증류소주 5종 선보여

농진청, 우리 농산물 발효... N9 적용

5개 지역 국산 쌀을 발효해 만든 전통 증류소주 5종이 선을 보인다.

농촌진흥청은 2017년 시작한 ‘전통 증류소주 대중화 프로젝트’를 통해 올해 9월 5개 지역에서 전통 증류소주가 성공적으로 출시됐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전통 증류소주가 출시된 지역은 경기 가평·용인, 강원 강릉, 충남 당진, 제주 성산포다. 전통 증류소주는 일반 소주와 달리 주정을 쓰지 않고 우리 농산물로 발효하고 증

류시켜 만든 전통주다. 각 지역에서 생산된 쌀에 농촌진흥청이 개발한 생쌀 발효법과 소주용 전용 효모 ‘N9’을 적용해 만들었다.

기존에는 쌀을 찌서 술을 만들었으나 생쌀 발효법은 쌀을 씻고 불리고 찌는데 드는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기 위해 쌀을 찌지 않고 그대로 사용하는 기술이다. 소주용 전용 효모 N9는 국내에서 수집한 지역 누룩에서 발효 능력이 우수한 효모를 분리한 후 알코올 내성, 당분 소비율, 관능적 특성 등을 분석해 선

/세종=한용수 기자